



지혜의 말씀

불기 2566년 1월 / 통권 491호

대한불교조계종 **진행대광사**



證道歌 (증도가)

지 지 범 중 장 보 리
 只知犯重障菩提하고
 불 견 여 래 개 비 결
 不見如來開秘訣이로다

다만 중죄를 범하면 보리에 장애가 된다는 사실만 알고
 여래가 열어놓은 그 비결을 보지 못하더라.

유 이 비 구 범 음 살
 有二比丘犯淫殺에
 파 리 형 광 증 죄 결
 波離螢光增罪結하고

두 비구가 있어서 음행과 살인을 범하고
 우바리존자의 반딧불 같은 소견은 죄의 매듭만 증장시키고

목 차

시와 불교의 만남 · 2

생각의 터 · 4

활기차고 즐거운 삶 / 윤성스님

사자단상(四字斷想) · 8

談聞知人(담문지인) / 무경스님

대광사 1월 법회 및 행사 · 12

알림마당 · 13

설날 합동제사 안내

신축년 정초기도 안내

입춘 · 삼재소멸기도(용, 쥐, 원숭이)안내

고맙습니다

제20기 대광불교대학 신입생모집 안내



표지그림/원성스님

● 발행처 / 대광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03(태백동)

Tel. 055) 545-9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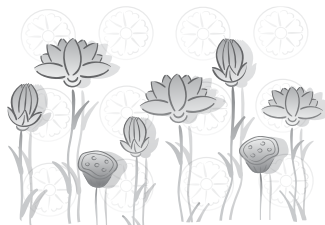
홈페이지 / ① 대광사

② www.daegwangsa.or.kr

● 발행인 · 편집장 / 무경스님

● 주 간 / 설희삼

● 편집 · 인쇄 / 디자인스프링





활기차고 즐거운 삶

운성스님 / 대광사 회주

우리는 지금 전대 미문의 끔찍한 코로나라는 질병에 사로잡혀 있다.

이 질병은 벌써 일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기세를 더하고 있다. 오히려 점점 새로운 세력으로 진화하여 각종 백신을 개발하여 이를 막으려고 혼신을 다하는 인류의 노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각 나라가 온갖 과학 기술을 동원해 치료에 힘을 다하고 있지만 창궐하는 기세를 막지 못해 전전공공이다.

수백 년 전에도 스페인을 기점으로 전 세계에 치명적 독감이

번져 수천만 명이 죽고 수천만이 고통에 시달리기도 했었다.

전쟁이 일어나거나. 자연 재해가 일어나거나. 질병이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지구라는 별이 자체 생태를 유지하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라는 설도 있다.

대체로 50년을 주기로 발생하는 것이 인류의 전쟁 발생 역사라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백 년을 주기로 역사는 늘 새로운 개편이 이루어진다는 설도 있다.

아무튼 전쟁이나, 질병이나, 자연재해는 인간을 극도의 고통으로 몰아넣는 참혹한 재난이다. 모두가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 싶은 고통이다.

사람의 몸은 37조 개가 넘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포들은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연간 1천 번이 넘는 질병 세균들을 물리치며 우리 몸을 보호한다고 한다.

세상에는 8천여개의 질병 세균들이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 몸을 침략하고 있지만 대부분 몸속 세포들이 이를 물리친다고 한다.



그러나 더러는 병균에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불치병에 내몰리기도 하는데 나이가 많아지거나 몸이 허약해져서 세포의 저항이 저하되는 것이 원인이다. 늙음이 가장 큰 질병의 원인인 셈이고 체력 저하가 결정적 원인이다.

누구에게나 늙음은 찾아오고 체력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다만 본인 노력에 의해 다소 늦출 수는 있는 것으로 인류는 판단 했다.

인류가 발견한 가장 좋은 건강 유지 비결은 '늘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꼽고 있다. 다음으로 '정기적인 운동'을 들고 있다. 그다음으로는 좋은 인간관계를 들고 있다.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을 더 나열하기도 하지만 이 세 가지를 지나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가장 필요한 것은 활기차고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이다. 활기차고 즐거운 삶은 '좋은 마음과' '정기적인 운동'과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지 않고는 결코 이룰 수 없다.

경에서 이르시길...

"보살은 중생을 통해 부처를 이루어간다." 했다.

부처를 이루는 것은 불교인에게 최고의 희망이며 최대의 기쁨이다.

불교인이 지향하는 최대의 기쁨은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자기 관리도 철저해야겠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과의 관계를 좋게 가지는 것이 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며, 나를 즐겁게 하는 방법이란 말이다.





談聞知人(담문지인)

무경스님 / 대광사 주지

신도님들과 차담을 나누다 보면 간혹 대화의 주제가 연예인이거나 드라마 이야기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그때마다 꼭 이런 질문을 받는다.

'스님도 드라마를 보십니까?'

하지만 필자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때문에 한참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뒤흔들었던 영화 기생충이나 드라마 오징어게임도 아직 보지 않았다.

뭐, 세속적인 것을 멀리하려는 출가자의 고상한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흥미가 가지 않는다고 할까?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기 위한 TV도 방에 없다. 반면 토크쇼 예능이나 축구 경기

는 좋아해서 유튜브로 하이라이트 영상을 챙겨 보는 편이다.

필자 역시 대다수 국민들처럼 개그맨 유재석씨를 좋아한다. 자신의 일에 대한 프로정신과 공인으로써 책임감도 훌륭하지만, 무엇보다 말을 잘해서 좋다.

여러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도 보게 되고, 자기가 말을 잘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보게 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함께 차담을 나누는 시간이 즐겁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피곤하다.

말솜씨는 음식솜씨, 글솜씨와 마찬가지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면이 있다. 필자의 경우 전생에 묵언수행을 했는지, 아니면 머리에 든 게 없어서 그런지, 금생에는 '변재(辯才:말재주)'를 갖추기가 어려울 듯하다. 물론 후천적인 노력으로 어느 정도 개선되기도 하겠지만, 괜히 어설피게 '척'을 했다가는 밋상으로 보이기에 십상이다.

대중이 말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싸력' 때문일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호감은 때로 재력이나 권력보다 강한 힘을 발휘하는데, 말을 잘하면 이 호감을 얻기가 쉽다. 그런데 이것도 무조건적인 조건은 아니다. 말을 아무리 잘해도 비호감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호감과 비호감을 결정 짓는 기준은 말만 잘하느냐, 아니면 말도 잘하느냐의 차이일 것이다. 전자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



을 때 듣는 말이고, 후자는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듣는 말이다.

불교에서는 이처럼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 나가는 과정을 수행이라고 말하고, 말과 행동을 완전히 일치시킨 사람을 부처라고 부른다. 이 말인즉슨 언행을 일치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또한, 부처님께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은 말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앞뒤가 맞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대화를 나누는 분위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좋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는 서로가 서로에게 듣기 좋은 말을 잘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까지 좋으려면,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의 지위고하가 어떻든간에, 그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가 동반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대화를 나눌 때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란 무엇일까? 바로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잘 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게 의외로 어려운 일이다. 특히 관계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그렇다. 만약 이 듣는 것이 잘 된다면 가족은 항상 화목할 것이고, 친구간에 우정도 영원하지 않겠는가?

때문에 진정한 인간관계는 서로 말을 잘하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말을 잘 들어주는 것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안 내

대광사 법요집이 바뀌었습니다.
조계종 종단 표준 한글본으로 천수경, 반야심경,
예불문을 독송합니다.

[유튜브]

1. 천수경 <https://youtu.be/uMWc-jeKPzU>
2. 반야심경 <https://youtu.be/JRlvclVXnhc>
3. 예불문 https://youtu.be/d_iuePORGxQ

◆ 새로 발행한 한글법요집은 종무소와
가판대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 대광사 1월 법회 및 행사 ❁

- ❖ 1월 3일 : 초하루기도 입재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1월 5일 : 초하루기도 회향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1월 17일 : 보름법회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1월 23일 : 불대 19기 졸업식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설날합동제사

- 일 시 : 2월 1일 오전 7시 설법전
- 동참금 : 영가 1위당 2만 원

신축년 정초기도 안내

- 일 시 : 2월 3일~7일 오전 10시 설법전
- 동참금 : 가족축원 5만 원



대광후원회

(2021.11.17~2021.12.17)

변창인 20,000	김병문 20,000	정대식 30,000	배수진 30,000
황두관 10,000	박미애 10,000	김지현 50,000	강성진 10,000
김경남 20,000	김순남 20,000	조인우 10,000	㈜카텍 300,000
홍승운 20,000	동우영 30,000	조우현 10,000	박진호 100,000
정진이 10,000	윤소영 20,000	조한분 50,000	원광한의원 100,000

◆ 급식소 후원 계좌 : 수협 921-61-001338 대광사 ◆

※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군법당 후원

후원회 100,000원 / 유미란 50,000원

♥ 지혜의말씀 후원

양재봉 10,000원 / 김용근 20,000원

입춘·삼재소멸기도(용,쥐,원숭이)

- 일 시 : 2월 11일~13일 오전 10시 30분
- 동참금 : 입춘(3만 원) / 삼재소멸(1인당 2만 원)



진해대광사 찬불단 / 다도반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시라회 다도반 : 매주 목요일
- 찬불단 : 매주 금요일
- 문의 및 접수 : 종무소 545-9595



※ 경전반 모집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불대 강의실에서 회주큰스님께서
법화경 강의를 하십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신도님들의 협조바랍니다.

- 가족사항, 주소, 휴대폰번호 등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종무소로
연락바랍니다.

-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2021년부터 기제사비가 영가 1위당 4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영가 추가시 5만원씩 추가됩니다.
(예 : 영가 2위이면 40+5=45만원)



佛紀 2566年 대광사 신도기본교육 및 제20기 대광불교대학 신입생모집 안내

진흙에서 핀 은은한 연꽃이 세인을 매료시키듯 부처님의 말씀 또한 그러합니다.

부처님께서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이며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삶인가를 가르치시고 이끄셨습니다.

대광사에서는 올해도 훌륭한 스님과 법사님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부처님 가르침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신도기본교육 및 불교대학을 개강하오니 불자님들께서는 많이 동참하시어 값진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신도기본교육 및 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요강

	신도기본교육	대광불교대학
대 상	미수계자 및 초심자 누구나	신도오계 수계자
교육기간	2022년 3월 8일~3월 30일	2022. 4. 5(화)~12. 7(수) (1년 과정 - 2학기제)
수계일	2022년 4월 2일	

- ▶ 교육일시 : 매주 화·수 오전 10시~12시
- ▶ 접수기간 : 2021년 11월 1일부터 ~ 2022년 2월 말까지
- ▶ 수 강 료 : 신도기본교육 50,000원 (신도증발급, 수계비 포함)
불교대학 1학기 150,000원 (교재비, 성지순례비 포함)
- ▶ 신청준비물 : 증명사진 1장, 신청서 작성
-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 ▶ 입학원서 메일 및 팩스발송 해드립니다. 필요하신 분은 종무소로 연락바랍니다.



온라인 입금 안내

경남은행 : 518-07-0096440	예금주 - 대광사
수협 : 921-61-000421	예금주 - 대광사
농협 : 821145-51-042833	예금주 - 대광사
국민은행 : 654301-04-231813	예금주 - 대광사

대한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